

신문박의 禪

프로 바둑기사 조훈현 씨



심으로 승리해 한국에 3년연속우승의 영예를 안겼다.

생사를 초월하는 것과 같이 싸우되 승패를 뛰어넘는 마음이 무심이다. 하지만 '감정' 있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입산(入禪: 9단의 발심)의 경지에 들어선지 오래인 그도 이 '감정 통제'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감정절제' 승패좌우

"정상급 기사들의 경우 얼마나 더 마음을 비우는 부동심(不動心)으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 흔들리면 관세도 흔들리죠. 승패의 집착(執着)을 버릴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까요. 아이추어들도 '꼭 이겨야겠다'고 버리는 판일 수록 대체로 지는 일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같은 '무심훈련'으로 다져진 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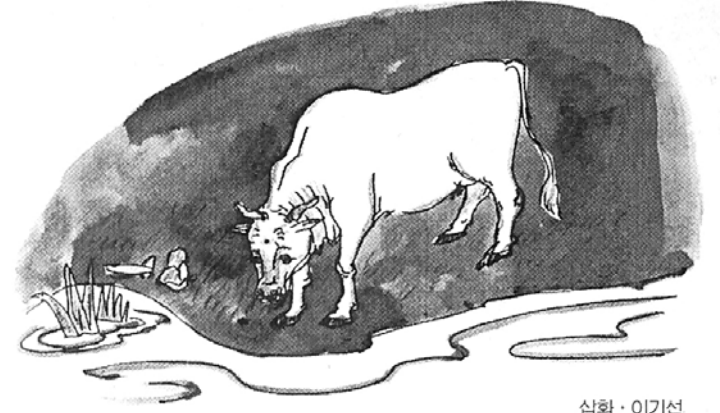
"부동심 갖느냐 못 갖느냐에 따라 반집차 승부결정"

'이겨야지' 집착 버리고 盤上의 도인돼야 진짜 入神경지

20년간 정상을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의 바둑이 강한 또다른 이유가 있다. 강(剛)과 유(柔)를 겸비하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점이다. 그는 공격 바둑과 수비(守)바둑의 장점을 절묘하고도 빠른 행마(行馬)바둑으로 조화시키고 있다. 이른바 '중도(中道)의 바둑'이다. 치우침이 없기에 어떤 유형의 바둑에도 강한 것이다. 그는 '세계최대승' 기록도 갖고 있다. 62년 입단 이후 통산전적은 지난 8월24일 현재 1천1백 51승 3백59패 9무승부다.

지난해 전무후무한 세계바둑대회(동양증권배·임창치배·후지쓰배·진로배)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천하무적의 조국수도 어려워하는 상대가 있다. 바로 그가 키운 '호랑이 새끼' 이창호 7단이다. 대국할 때만 되면 '돌부처'가 되는 내재자(內弟子)와의 '무심' 겨룸은 항상 '반집' 차이의 미세한 승부로 끝난다. 그야말로 사제지간의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대화'라고나 할까. 그



심화·이기선

'나와 너' 함께 편안할때 불국토

불교를 믿는 재가불자들은 사찰에 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수행만 하고, 기도만 하는 개인 신앙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종교인은 자신의 청정을 닦아가면서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맑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부처님 말씀이 있다. 즉 우파사카(재가불자)가 수행상 갖추어야 할 덕목을 설명하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우파사카는 스스로는 계율을 지키지만, 남은 바른 계율에 서게 하지 못한다. 스스로는 깨끗한 계율을 가지지만, 남은 바른 계율에 서게 하지 못한다. 스스로는 보시를 행하지만, 보시로써 남을 세우지는 못한다. 스스로는 절에 나아가 여러 사문을 보살피지만, 남을 권하여 절에 나아가 사문을 보살피게 하지는 못한다. 스스로는 알뜰히 법을 듣지만 남을 권해 바른 법을 듣게 하지 못하는 못한다. 스스로는 법을 들어 가지지만 남은 바른 법을 받아 가지게 하지는 못한다. 스스로는 깊은 법을 알아 법을 따르고 법을 향해 수순하여 행하지만, 남을 권하여 법을 따르고 법을 향해 수순하여 행하게 하지는 못한다. 마하나미여, 이러한 여덟가지 법만을 성취하면, 이것을 우파사카가 스스로는 편안하게 하나 남은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 한다."』

마하나미는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우파사카로서 몇가지 법을 성취하면 스스로도 편안하고 남도 편안하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우파사카로서 열여섯가지 법을 성취하면 스스로도 편안하고 남도 편안하게 한다. 어떤 것이 열여섯인가. 마하나미여, 어떤 우파사카는 바른 믿음을 완전히 갖추어 그것으로써 남도 세운다. 스스로도 깨끗한 계율을

문 대중, 크샤트리아 대중, 장자 대중, 사문 대중들이 다 그에게 모일 것이요, 그 대중 가운데서 위엄과 덕이 환히 빛날 것이다. 마치 태양은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에도 위엄과 덕은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파사카로서 열여섯가지 법을 성취한 사람도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에도 위엄과 덕이 밝게 빛날 것이다. 마하나미여, 이와 같이 아파사카로서 열여섯 가지 법을 성취한 사람은 얻기 어렵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석씨 마하나미는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하고 떠났다. 『부처님의 교설은 자행(自行)을 가르치고 있다. 남을 위하여 실천하도록 권유할 수 있지만 그 권유에 따라 실천하는 의지가 상대방으로부터 영감되어야만 가능한 것

이다. 그러므로 법은 전법에 대한 행법에 따르지 못하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마하나미에게 일러 준 여덟가지도 이를 강조한 것이다. 사람은 소떼를 몰고 물가로 갈 수 있다. 목미른 소가 직접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에서 억지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 중생이 선하게 되는 것도 스스로 발행하는 마음을 내어야 한다.

끝으로 열여섯가지를 실천하고 공행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나와 내가 함께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불교는 자타가 함께 공존하면서 보충되는 교설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52

공생(共生)

"사막 걷는 수행자처럼 초읽기에도 오직 無心"

흔히 바둑판은 삶의 축소판(縮小版)이라고들 한다. 반상(盤上)의 승부는 인생의 치열하고도 허망한 한 단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승리의 환희와 패배의 고통이, 그리고 승패의 덧없음이 한결같은 삶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바둑판 위에서 이기고 지는 일에 목숨을 거는 프로 승부사의 세계가 이목을 모으는 것일까.

대중은 환성(환성)과 탄식(탄식)으로 프로기사를 지켜본다. 승부라는 함정, 착각에 누가 빠지느냐, 실낱같은 풀타기에서 누가 나락(奈落)으로 떨어지느냐를 주시한다.

자기자신과의 싸움

지난 20여년간 한국바둑계를 이끌어 온 '세기의 승부사' 조훈현(曹薰鉉·42) 국수(國手). 그는 바둑을 '자기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어렵게 정의한다. "저의 스승인 세고예(謝國楨) 선생은 늘고 아득하기만 해서 알 수 없다는 뜻으로 '호환'이라고 요약하셨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듯 합니다. 불가에서는 그것을 평상심(平常心)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지를 지향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심(無心)이라는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지난 89년 9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회 임창치배(應昌熙杯) 세계바둑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며 초대 세계바둑황제에 등극했던 조국수는 임창치배 결승 4, 5국을 앞둔 무더운 8월, 화선지를 펼쳐놓고 '無心'이란 두 글자를 반복해서 썼다.

"오직 '무심', 고요함이 상승일로에 있는 중극의 섭위령 9단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승부는 기술이 아닌 존각(寸刻)의 흔들림에 있습니다. 누가 최후의 순간에 고요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무념무상(無念無想)의 경지에서만이 결집(結集)할 수(手)를 들 수 있고, 끝내는 여의(如意)하게 대국(對局)을 끝낼 수 있습니다."

"나의 바둑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깊고 오묘한 세계를 찾아 정진할뿐..."

'감정 절제'는 대국을 떠난 일상생활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아마도 날카로워 보이는 그의 인상과 냉엄한 승부사의 기질이 그를 보다 완벽한 천하제일의 고수(高手)로 보이게끔 하는가 보다.

부인 정미화(39)씨는 조국수에 대해 "남만의 소질과 승부사 기질을 모두 지닌 진짜 프로"라고 추켜세운다. 대국장에서는 제갈공명처럼 빈틈없는 그도 집안에서는 완박한 가정조절로 가족을 그렇게 관하게 해줄 수가 없다고 한다. 살벌한 프로세계에서 항상 담담하고 여유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는 마치 세속에 사는 도인(道人) 같다... 바둑의 세계에는 절대강자가 없다. '목숨을 걸고 둔다(조치훈 9단의 말)'는 투혼의 화선들이 스무룩하기 때문이다. 0.01초로 승부를 내는 서부의 총잡이들처럼 승패는 언지나 예측불허하다. 그러나 조국수는 기술과 체력 외에도 '무심의 철학'으로 바둑을 뛰 왔기에

러나 조국수는 이 바둑황제대를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한다. "나도 제자로 있었지만 제자는 능히 스승의 바둑을 빨리 자기 것으로 만들어 스승을 능가해야 합니다. 이 7단을 키움으로써 나는 스승들의 은혜를 갚게 됐습니다." 바둑은 그의 삶의 전부이다. 언제나 바둑을 생각하고 연구한다. 새벽일찍 일어나 옛사람들의 기보(棋譜)를 보고 바둑돌을 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의 바둑은 아직도 까마득하게 미완(未完)입니다. 바둑의 깊고 오묘한 세계, 언제나 두려움없이 붓을 들어 써본 적이 없는 '호환(아득하고 아득한)'의 세계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기 위해 더욱 정진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棋道)의 높은 경지에 이르고 바둑사에 오름(名)을 남기고 싶습니다."

김재경 기자

기술과 유통과정이 가격 격차를 해결 했습니다

'95최신형 방열판 15개를 확인후 구입하십시오

BECKER·CALORIC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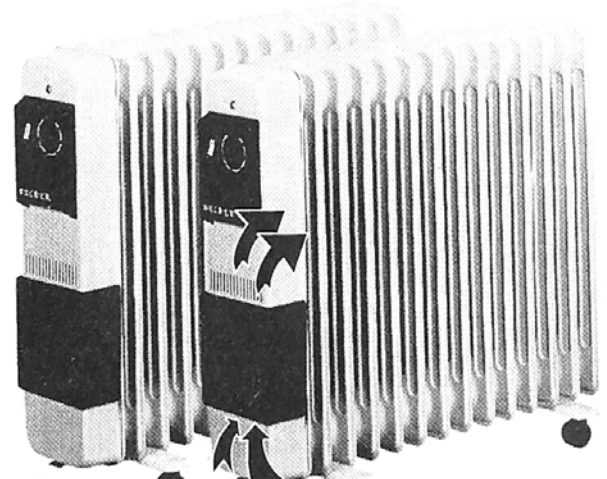
- 정정그린에너지의 난방기구
- 온풍권 기능의 연속난방
- 자동온도 조절장치 및 과열방지 기능
- 자동 동파방지 기능
- 고품격의 디자인 및 안전감각
- 이동을 자유로운 난방기구

주요 기능

- 자동온도 감지센서 기능
- 동파 및 과열방지 기능
- 열효율을 높여주는 공기 흡입배출 일렉트릭 팬

제품 사양

내용	종류	BECKER 라디에이터
형식상위번호	형 7-753	
전력 전압	220V/50Hz	
규격	W1200mm×D660mm	
방열판 수	15개	
소비전력	1단 1,000W 2단 2,000W 3단 3,000W 전·온풍용 2,800W	



특별 보급가

수입원→참고→소비자 ₩396,000 → ₩248,000

회전식 세라믹 팬히터

Piero Cardini

회전식 세라믹 팬 히터 장점

- 동종 최대의 강력한 파워
- 회전식 기능의 송풍난방
- 피에르 카르디니 디자인과 기술에 의한 고품격의 감각
- 조용하고 아늑한 실내분위기

세라믹 히팅 방식이란?

전기에 의해 간접 가열된 특수가공 세라믹 관내 시아로 공기를 방출시키는 원리로 신수가 되지 않는다



특별 보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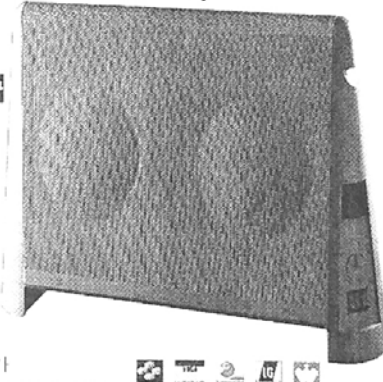
₩160,000 → ₩138,000

분사식 송풍 난방

MAX

정정그린에너지의 난방기구

- 연속적 일방난방기
- 온풍권 원천 해결
- 분사식 기능의 송풍난방으로 아늑한 분위기 연출
- 시동온도장치 및 과열 방지기능



특별 보급가

₩380,000 → ₩278,000

남미물류(주) ■광역시 부산 646-7905~6 ■경기도 수원 (0331) 216-6336 ■강원도 거제, 충무 인동 ■충청도 홍성·대전 예산 (0451) 34-0121~2 ■전라도 전주 85-5130 ■충청도 천안·문양 (0417) 582-4475

광주 361-1349 ■경기도 평택, 오산, 안성 (0333) 655-0966 ■충청도 천안·문양 (0417) 582-4475

대구 ■경기도 안양 43-8949 ■충청도 천안·문양 (0417) 582-4475

대전 627-9484 ■경기도 김포, 강화 ■충청도 마산 56-7685

충남 762-7944 ■충청도 순천 78-6428